목포에 대행 선사 가르침 전할 新도량 세운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새 도량 기공법회

7월 11일 불사 현장서 봉행
전국 지원 3000여 대중 운집
전체 1만8682㎡, 5개동 건립
불사 위해 종합건설사 개원해
지역사회 수행도량 조성 목표
"모두 도량신 돼 불사 원만성취"

목포=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7월 11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건립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들이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전남 목포에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새 도량 불사가 본격화된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지원장 혜당 스님)은 7월 11일 전남 목포시 용해동 건립부지에서 '새 도량 기공법회'를 봉행하고 불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목포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스님,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전국 지원장 스님들이 자리했다.

또한 박종수 본원 명예신도회장, 신현준 본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 지원 신도회장과 회원, 강성휘 목포시장,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김기상 건화건설 대표, 박진홍 한마음종합건설 대표 등 3000여 대중이 운집해 불사의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기공법회에서는 대행 선사가 1998년 11월 22일 목포지원 개원법회에서 설한 영상 법문이 상영됐다. 대행 선사는 목포지원이 특정 집단의 소유 공간이 아니라, 사부대중이 함께 공부하고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수행 도량임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 영상 법문 후에는 승단을 중심으로 화합재가 이뤄졌으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시삽이 진행됐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치사를 통해 대중 화합으로 불사를 원만성취할 것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 오래전에 자리 잡아주신 이 불사터가 참으로 아름답다"며 "좁은 법당에서 고생한 만큼 불사하는 동안 대중들이 더 화합하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한마음 주인공에 관하는 실천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불사를 하면 모든 도량신이 도와준다고 하셨다"면서 "우리 모두가 도량신이 돼 함께 불사의 마음을 내고 이를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한마음 도리가 꽃 피우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목포불교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불사에 임하시며 지원장 혜당 스님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선근 공덕으로 무탈하게 불사가 완공되길 기도 발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불사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도량을 세우는 일임을 강조했다.

혜솔 스님은 "30여 년을 목포지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마음 법당에서 정진해 오셨기에 이 불사터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항상 자상하게 수행의 지침을 말씀해주셨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대로 목포지원 새 도량이 무위공덕의 지혜를 밝히는 도량, 누구라도 인연 닿으면 벗어나게 하는 도량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새 도량이 건립되는 전남 목포시 용해동 556-1 일원은 대행 선사가 오래 전에 지목한 곳이다. 새 도량은 대지 전체 면적 1만 8682㎡, 건축 연면적 1660.29㎡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대웅전·요사채·공양간·교육관·수행관 5개 동이 건립된다. 이번 불사를 위해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종합건축사인 '한마음종합건설(주)'을 설립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새 도량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다양한 세대가 대행 선사가 전한 마음공부를 접하며 한마음의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는 수행도량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지원장 혜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자타불이' 정신으로 불사를 이룰 것을 약속했다. 혜당 스님은 "목포지원의 새 도량 불사 현장은 28년 전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 정해주신 뜻 깊은 불사터"라며 "목포지원 대중은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정진하며 자신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는 불사를 지극한 마음으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목포지원은 1991년 대행 선사의 법문과 〈한마음회보〉 등을 통해 한마음 가르침에 인연이 닿은 20여 명이 광주지원을 오가며 마음공부를 이어간 것이 시작이다.

1992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에 '목포신행회'를 구성해 활동했고, 1995년 목포에 작은 공부방을 마련하며 지역에서의 마음공부가 본격화됐다. 이후 목포시 상동 952-19번지에 도량을 마련해 1998년 11월 22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대행 선사를 모시고 목포지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후 목포지원 사부대중은 오랜 기간 새 도량 불사를 발원하며 마음을 모아왔으며, 이날 기공법회를 통해 본격적인 신축불사를 시작했다.

"진관 스님 원력 잇겠습니다"…10주기 부도탑 제막

7월 12일, 함월당·부도전서 봉행
1000여 명 함께 10주기 다례재


부도전에서 열린 '부도탑 제막식' 모습.

평생을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 계승을 위해 힘쓴 무위당 진관 스님의 원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법향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7월 12일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월당에서 '무위당 진관 선사 10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에서 "진관 스님은 폐허 위에서 오직 불사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찰을 중창했다. 스님의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여법한 진관사의 모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이 걸어온 길 그대로 귀감이 되는 이정표이자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전하는 산 증거"라며 "불교와 사회를 향해 보여준 스님의 원력은 참으로 넓고도 깊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진관사를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관사 국행수륙재'를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로 일궈낸 것은 스님의 선구적인 안목과 원력이 거둔 위대한 업적"이라며 "사부대중은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스님이 등불로 켜준 수행과 자비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종단은 스님의 고결한 뜻을 받들어 사부대중이 화합하고 세상에 봄을 보듬는 자비행을 더욱 널리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발원했다.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후 "은사 스님이 폐허가 된 진관사를 일신중창(一新中創)해 1963년에 다시 일으켜 세운지 올해로 63년이 됐다"며 "제자들은 은사 스님이 남긴 그 뜻을 잊지 않고 수행과 자비, 전통, 문화, 포교와 복지로 나눔을 실천하며, 진관사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더욱 공심을 모아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도 "1967년 조계종 비구니회가 창립될 당시 제도적 기반, 교육의 터전, 승가를 대표할 공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진관 스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비구니 스님들과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길을 열어줬다"고 회고하며 "비구니회는 스님이 남긴 원력을 계승해 종단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승단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지 법해 스님은 한국전쟁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후손으로 이뤄진 강뉴합창단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은평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쌀 3000kg을 전달했다.

참석 대중은 다례재 후 부도전으로 이동해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했다.

진관 스님의 사리를 봉안한 부도탑은 오채현 조각가가 진관사에 있던 돌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

박지운 기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 개최

조계종 민추본, 8월 15일까지
평화·금강산 관광 재개 주제

남북평화 가치를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글짓기 공모전이 열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성행 스님)는 불교신문과 함께 '불교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발원하며 금강산에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글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수필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수필은 200자 원고지 10~15매 분량이다.

접수는 8월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9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02-720-0531 이현희 기자



심인중·고 학생 185명 부처님 제자 되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13일 대구 심인고 강당에서 '진기 80년 심인중·고등학교 청소년 수계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불사에는 심인고 학생 140명과 심인중 학생 45명이 동참했다. 임은호 기자



"복날을 생명 살리는 날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7월 1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2026 복날채식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복날 채식 서약'을 독려했다. 매년 복날에 집중되는 육류 소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명과 환경 문제를 재고하자는 취지다. 이현희 기자

국립공원 '반달 스님', 토이어워드 수상

작년 공공캐릭터 특별상 이어
일반경쟁부문 '최우수상' 쾌거



국립공원공단이 지난해 선보인 '반달 스님·반달 동자 스님' 굿즈〈사진〉가 제12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이하 공단)은 "7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토이어워드' 시상식에서 국립공원 굿즈가 일반경쟁부문에서 '최우수상(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완구 시상식인 '대한민국 토이어워드'는 한국완구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완구시상식으로 완구 개발 및 기획, 디자인, 대중성 및 매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공단은 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공공캐릭터 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반 완구기업과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경쟁하는 일반경쟁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공원 캐릭터는 멸종위기종 등 공원별 지정된 깃대종 동물로 이뤄져있으며 각각의 국립공원을 수호하는 수호동물 캐릭터로 국립공원의 가치와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캐릭터가 대한민국 토이워어드 일반경쟁부문에서 수상한 사례는 2020년 안동시 캐릭터인 '엄마까투리' 이후 유일한 수상이다.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생태디자인실장은 "국립공원의 캐릭터가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공공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기자칼럼

승가교육 혁신, 맞춤형 AI

"스님, 사성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을 이제는 법당뿐 아니라 인공지능(AI)에게도 던지는 시대다. 학교와 기업을 넘어 승가교육도 AI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가 6월 27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상주교수 세미나는 그 출발점이라 할 만하다. 사찰승가대학·대학원 교수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활용법이 소개됐다. 검증된 불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학 자료를 검색하고 강의를 설계하는 맞춤형 AI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세미나의 의미는 AI라는 기술을 소개한 데 있지 않다. 승가교육이 시대 변화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AI는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수행자 역시 기후위기와 생명윤리, 디지털 기술 등 이전과는 다른 시대적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이제 승가교육은 경전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역량까지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AI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방대한 경전과 조사어록을 찾고 비교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교수사 스님들이 토론과 수행 지도 등 교육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의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교학 연구는 방대한 문헌과 번역·해석의 차이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반면 검증된 불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AI는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를 제공해 연구와 강의 준비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전과 논서, 종헌·종법, 종단 교육자료를 아우르는 승가교육 전용 AI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교육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물론 AI가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다. AI는 경전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참선할 수 없고, 자비를 정의할 수는 있어도 실천할 수는 없다. AI시대 승가교육의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육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불광사전 기반 검색 전용 GPT'가 승가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임은호 편집국 부장